



동명대 해양모빌리티학과

정리 조나리 기자 jonr@naeil.com
 도움말 박성주 교수(동명대학교 해양모빌리티학과 학과장)



#소속 대학

공과대학

#학과 소개

미래 스마트 선박 개발과 관련해 설계와 제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융합 지식을 배우는 신설 학과다. 동명대 해양모빌리티학과 박성주 교수는 “주요 관련 산업은 조선업이지만, 레저 산업 또한 연구 대상이다. 국내에서 해양모빌리티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동명대가 유일하다. 해양모빌리티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바다와 바다 위, 바다 속에서 이동하는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학년 때는 해양모빌리티 설계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2~3학년은 구조물 제작 기술과 자율운항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졸업 후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와 해양모빌리티 산업체, 해군·해경, 자동차 업체, 선박 업체, 연구소 등에 진출한다.

#2023학년 수시&정시 선발 인원

정원은 31명이다. 수시에서 총 29명을 선발했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일반고 21명, 특성화고 13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7명을 선발했다. 정시에서는 일반전형으로 2명을 선발했다.



특징

✦ 산학 지원 및 채용약정 프로그램

동명대 해양모빌리티학과는 동 대학에서 4년 과정을 마치는 과정 외에 기업체와의 채용약정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받고, 장학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약정 인원은 연간 15명으로, 1학년을 마친 후 산학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2~4학년 때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실무 교육을 받는다.

✦ 학·석학 연계 프로그램

3+3 학·석학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3학년까지 학부를 마친 후 4학년부터 인하대 또는 부산대에서 4학년 과정을 마치고 각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학사 학위 취득은 동명대에서, 석사 학위 취득은 인하대 또는 부산대에서 한다.



전망

모빌리티 기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양·조선 산업에서도 전망 높은 기술로 꼽힌다. 최근 주목받는 활용 분야로는 육상과 선박을 연결해 선박의 운항 정보를 수집하고 선박의 충돌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 감시 및 추적 등이 있다. @



지역 대학에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과나 수도권 대학에는 없는 유망 학과들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일수록 대학의 이름보다는 학과나 졸업 후 진로를 최우선 고려 요소로 두는 경향도 높죠. 학생들의 폭넓은 학과·진로 탐색을 위해 지역 대학의 유망 학과를 소개합니다. 해당 학과에 진학한 후 배우게 될 교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전망도 짚어봅니다. _편집자